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경훈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요즘 귀농·귀촌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40~5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마치 유행처럼 흔하게 듣는 얘기가 되고 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도시의 높은 집값과 비싼 생활비로 힘들어진 가정형편을 해결하거나,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기게 위해서가 대부분일 것이다. 최근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취업난 속에서 귀농을 선택하는 40대 이하의 젊은 층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학기 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외삼촌이 계시는 시골로 가서 농업으로 성공하겠다는 당찬 각오를 남기면서 자퇴신청을 하던 모습이 새삼 떠오른다.

귀농·귀촌 활성화와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도시생활을 접고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난 3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귀농·귀촌인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사를 짓는 귀농가구는 2013년 대비 2% 증가한 1만1144가구로 40~50대의 1~2인 전입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을 선택한 귀촌가구는 작년 대비 무려 55.5% 증가한 3만3442가구로 나타났다. 귀촌은 주로 수도권에 인접하여 생활 여건이 좋거나 자연경관이 좋은 농촌지역에 집중되었고, 연령대와 전입가구원수는 귀농가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이 저출산·고령화 단계를 넘어 무(無)출산·초고령화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에서 귀농·귀촌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농촌 살리기를 위한 작은 희망의 메시지로 느껴진다.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귀농·귀촌가구의 증가를 쇠퇴하는 농촌에서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농촌으로 변화하는 계기

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지난 1월 20일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현황 및 실태파악,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홍보 및 정보화 촉진, 재원 조달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귀농이나 귀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농촌 생활을 접고 다시 도시로 되돌아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귀농·귀촌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 부족한 것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은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도시민뿐만 아니라, 이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농촌 마을 주민들에게도 모두 필요한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더디지만 제대로 가는 길'을 걸어온 진안군의 '살기 좋은 농촌 마을만들

기' 경험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다양한 시도들이 귀농·귀촌 활성화와 살기 좋은 농촌 마을만들기의 해답을 찾아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진안군은 전국 최초로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학습활동과 행정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고, 2006년 귀농·귀촌 정책과 결합하여 연간 100가구 정도가 진안군으로 이주해 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유치만이 농촌 주민들에게 큰 소득을 안겨준다는 고정된 관념을 조금씩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도시로부터 귀농·귀촌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지역마다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특산물이나 정당한 농산물, 고유한 전통문화와 풍습, 그리고 자연생태 및 농촌경관·역사 자원들을 서로 연계한 지속가능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행정과 풀뿌리 민간조직 및 전문가 그룹의 지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노인성 심방세동



김성수
광주기독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동은 노인에서 가장 흔한 부정맥으로 허혈성 뇌졸중 발생 원인의 약 20%를 차지하며, 허혈성 뇌졸중 발생위험을 5배 증가시키는 질환이다. 심방세동에 의한 색전성 뇌졸중의 경우 다른 뇌졸중에 비해서 사망률이나 장애의 빈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심방세동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뇌졸중을 일차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치료 지침에서는 뇌졸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심방세동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증상 노인 환자에게도 심방세동의 검진을 통해 심방세동을 진단하고, 적절한 항응고 치료를 통해 뇌졸중의 빈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심방세동은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흉통, 현기증 등 다양한 증상을 수반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흔해 최근에는 증상이 없어도 심전도 선별검사를 통해 심방세동을 찾아내고 혈전색전 위험도를 평가해 적절한 항응고요법으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방세동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며 서양의 한 보고에 의하면 60세 이상에서

는 1~2%, 70세 이상에서는 5%, 80세 이상에서는 10% 정도 발생한다고 해 적지 않은 노인들에게 심방세동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심방세동 유병률 조사는 2001년도 강원도 (60세 이상의 5551명의 노인을 대상, 유병률 1.2%), 2003년 안성·안산 지역 (60~69세의 2688명의 노인 대상, 유병률 1.0%), 2005년도 경상남도 건강검진 (60세 이상의 5044명의 노인을 대상, 유병률 2.1%), 2015년도 광주 노인건강타운 (60세 이상의 1500명의 노인을 대상, 3.1% 유병률)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는 2007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심방세동 환자들이 늘어남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광주전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중이 더욱 높기 때문에 심방세동의 유병률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확한 유병률 조사 및 이에 대한 뇌졸중 예방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심방세동 환자들은 흔히 무증상을 보이며 이렇게 진단되지 않은 심방세동은 심방세동의 첫 번째 합병증인 뇌졸중으로 주로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체계적인 심전도 선별검사 시행을 통해 심방세동을 진단해 뇌졸중 위험인자(CHADS2-VAS) 및 출혈 위험인자(HAS BLEED) 등을 고려해 적절한 항응고 치료 등을 시행하면 뇌졸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심방세동의 치료는 주로 증상 완화와 중대한 합병증의 예방을 목표로 한다. 합병증의 예방은 항응고치료, 심박수 조절과 동반질환의 적절한 치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들 치료에 의해서 증상도 완화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증상 완화를 위해 직류율동전환, 항부정맥 약물치료 또는 도자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

심방세동의 치료전략은 크게 항응고치료, 심박수 조절, 율동 조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치료전략 가운데 항응고치료와 심박수 조절은 모든 심방세동 환자에서 시행해야 하고 율동 조절은 발작성이나 지속성 심방세동에서 고려한다. 심방세동의 치료는 항상 항응고 치료와 심박수 조절로부터 시작한다. 심박수 조절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있으면 율동 조절 요법을 시행한다.

기 고

교육특구와 빛가람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



이세규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공기관 임직원이 가족을 동반하더라도 가족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인구 5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빛가람 혁신도시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광주·전남의 산업경제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산하 기업과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유치되어야 한다는 큰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빛가람 혁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가족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정주여건의 만족도를 극대화해 혁신도시의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보다 교육서비스와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현재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2.4%에 불과한 상황이며, 동반이전을 꺼리고 있는 주민 원인으로 자녀교육(47%)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입주한 주민들도 혁신도시 내의 교육·문화서비스와 시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광주·전남의 교육당국은 혁신도시의 교육수요(학생과 이용자)

부족을 근거로 교육서비스와 시설의 확충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가족동반과 유관 기업 및 연구소의 이주율이 저조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에는 교육 명품화로 지방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다양한 지자체의 노력이 있다. 밀턴 케인즈(Milton Keynes)시는 지방정부가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도입해 명품교육도시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생태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도시는 영국 북서쪽 80km에 위치한 인구 약 20만명의 중소도시이다. 밀턴 케인즈시는 최근 교육시설을 주민들의 중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문의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새롭게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이 계획의 특징은 도시인구가 서서히 증가하는 지역에 '초·중 통합학교'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같은 지역에 초등학교가 새롭게 건설될 경우, 기존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활용하도록 디자인했다. 이로 인해, 교육수요(학생수)가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체계적으로 교육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밀턴 케인즈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시설을 병립하고 지역주민들이 문화시설과 레저시설

로 사용하도록 일반 공동체에 개방하고 있다. 즉, 교육시설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학습활동과 평생교육을 지원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의 성공과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명품교육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광주·전남 교육당국의 시설투자가 먼저 이뤄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전기관들은 설립취지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업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빛가람 혁신도시를 교육특구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해 주민들과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빛가람혁신도시가 교육특구로 지정된다면, 광주·전남 교육당국의 우선 투자와 유연한 공공기관의 사업운용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교육특구 지정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투자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브랜드가치와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지역주민과 이전기관의 교육수요를 함께 충족시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과 같은 성공적인 빛가람 혁신도시의 발전을 마련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社說

문 대표 책임론 외면하면서 광주는 왜 왔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4일 4·29 재보선의 가장 이른 패배를 당한 광주를 찾아 “제가 부족했던 탓이다” “회초리를 한 번 더 맞는 심정으로 왔다. 통렬히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새롭게 창당하는 각오로 뺏속부터, 뿌리부터 환골탈태 하겠다. 연간 100가구 정도가 진안군으로 이주해 오기도 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광주 민심을 오독한 것에 대한 사과도 이어졌다. 문 대표는 “지역 분할구도에 안주해선 안 된다. 광주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호남의 지지에 안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표의 광주 방문은 진정한 레드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이 친노 중심으로 이끌리면서 소위 ‘뒤통’이라는 호남을 외면해 온 데 있다. 그런 면에서 문 대표가 강조한 환골탈태의 출발점은 호남 민심 복원과 친노세력 청산에서 비롯돼야 한다.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비전 없는 대처로는 호남 민심을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이다.

KTX 개통 관광특수 호기 농쳐선 안 돼

‘호남선 KTX 시대’ 개막으로 기대했던 관광특수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KTX 개통 한 달 만에 외지 관광객들이 전례의 자원, 풍부한 먹거리 등 남도의 매력을 만끽하기 위해 대거 광주·전남을 찾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목포역 1일 평균 승차객은 1450명, 하차객은 14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와 17.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는 주말 야경시티투어에 외지인들이 몰리자 버스 추가 투입 검토와 함께 섬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코레일 측에 열차 배치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관광지 여수도 외지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KTX 개통 이후 용산과 여수를 오가는 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전남도는 고속철이 정착한 시·군은 관광객이 44% 늘었고 그 외 지역도 8%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광객 급증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안주해선 안 된다. ‘주마가반’이라고

고속철 개통 효과 극대화를 위해 박차했던 관광특수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KTX 개통 한 달 만에 외지 관광객들이 전례의 자원, 풍부한 먹거리 등 남도의 매력을 만끽하기 위해 대거 광주·전남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 각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속철이 정착하는 목포시와 나주시의 숙박 관광객은 오히려 감소하는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도내 관광의 흐름을 파악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 바람직한 관광의 모델은 외서 먹고 자고 즐기고 소망하는 ‘토질관광’이다. 인프라 정비와 확충은 물론 음식·숙박업 서비스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관광이 효자산업으로 성장할 것인가는 다시 찾고 싶고 남에게 권하고 싶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창의성과 지속성 유지에 달려있다.

無等鼓

5월이다. 5월이 오면 으레 ‘대동 세상’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5·18이 독재정권에 의해 폭동으로 불리던 시절, 우리는 대동사회를 이뤘던 자부심으로 투쟁했다. 무고한 시민들이 총탄에 숨겨 죽은 상황에서도 열혈간이나 완벽한 민주질서를 유지했던,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말이 ‘대동’이었다.

‘대동’(大同)이라는 말은 원래 동양의 개혁 사상가들이 지향했던 이상사회를 이룬다. 이들은 사회를 난세(亂世)→소강(小康)→대동(大同)으로 분류했다. 중국은 2003년 자신의 국가를 소강으로 분류하면서 향후 대동사회로 발전시키자고 주장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여립의 대동계가 유명하다. 조선 선조 때 선비인 정여립은 벼슬을 그만두고 전주로 낙향했다. 유명 인사였던 정여립의 주위에는 지방 수령을 비롯한 선비, 무사, 승려, 천민, 도적, 도사 등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물러들었다. 이후 조선 죽도(竹島)에 서실을 짓고, 활쏘기 모임을 열었으며, 그들을 규합해 대동계를 조직했다. 대동계는 매월 보름 말 타기, 활쏘

기, 전자 불기, 칼 찌기 등을 연마했다. 이를 바탕으로 임진왜란 5년 전인 선조 20년, 녹도에 왜구가 침입하자 지방관의 요청으로 출동해 왜구를 물리치기도 했다. 대동계는 지방관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공개 조직이었으나, 2년뒤 반대 당파에 의해 정여립은 역도로 몰리게 되고 결국 자살했다고 전해진다.

1980년 5·18 민중항쟁 발발 이후 시민군이 계엄군을 몰아내고 자치공공체를 유지했던 5월18일~27일 열혈간은

단 한건의 사건·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5월 대동세상이라 부르

고 있다.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를 위해 지난달 말 미국 하버드 대학을 방문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하버드대 학생과 한인들에게 이 단어를 소개했다. 광주의 역사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군인들이 시민군의 저항으로 물러나고 이른바 ‘무정부 상태’였던 10일 간 광주에서는 단 한 건의 약탈이나 강도, 절도가 없는 대동세상이었다”며 광주시민의 민주정신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채희승 사회팀장 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p>光州日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9500> <F A X 222-0195></p>
<p>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p>	<p><F A X 227-9500> <F A X 227-9500></p>
<p>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p>	<p>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p>
<p>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p>	<p>*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